# AI 현대불교신문 영상 공모전

수상작 재생목록 바로가기

##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

### 81작품 응모…대상 없이 12작품 선정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주최한 '2026 현대불교신문 초심이 AI 영상 공모전'이 높은 호응 속에 회향했다. '초심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현대불교신문 마스코트 '초심이' IP를 활용해 AI 창작 영상을 발굴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1작품이 응모해 불교의 AI 미디어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심사 결과 대상 없이 총 12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지호의 '출근하다 불며든 썰', 양채원의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강동호의 '홀로 핀 꽃은 없습니다', 이은진의 '연(緣)이 닿다', 이채원·이현지 '오늘의 작은 깨달음', 김유나 '상황은 하나, 상상은 백 개!'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최대한·노광현·안형준·김태균·이채빈·남윤영이 이름을 올렸다. 심사위원을 대표해 혜장 스님(동국대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은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은 AI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제작자가 주관을 갖고 원하는 주제와 장면을 구체적으로 연출했다"면서 "AI라는 도구에 매몰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최우수상



**신지호**

**'출근하다 불며든 썰'**

거창한 실천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작은 순간들이 불교적 가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사소한 일로도 쉽게 타인을 미워하거나 번뇌에 빠질 수 있지만, 작은 용서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그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담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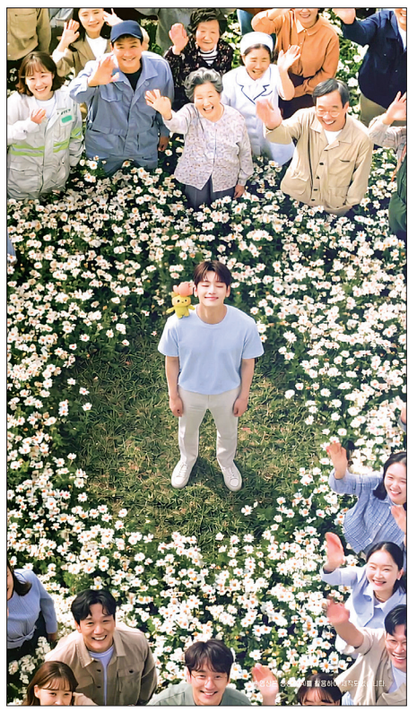



**양채원**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에서도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건넸던 따뜻한 마음만큼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건네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작품을 본 모든 분이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수상



**강동호 '홀로 핀 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하루하루는 결코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함께하는 꽃, 친구의 웃음,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해준 마음들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알아차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초심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보는 이들도 자신을 둘러싼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은 감사를 느끼길 바랍니다.



**이은진 '연(緣)이 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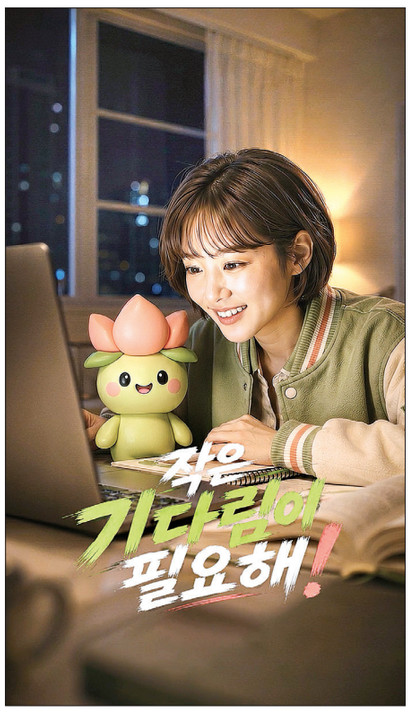
내가 베푼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불교의 인연과 순환의 가르침을, 거창한 설법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 하나가 오가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나눈 자비는 줄지 않고, 돌고 돌아 내 마음의 온기로 돌아왔다"는 마지막 자막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채원 · 이현지**

**'오늘의 작은 깨달음'**

행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빼앗겨 알아보지 못했을 뿐. 잠시 멈춰서 보면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김유나**

**'상황은 하나, 상상은 백 개!'**

우리는 상대의 침묵을 나의 100가지 망상과 집착으로 채우고는 화내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화는 삼독 중 하나로, 화는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불태웁니다. 100가지 상상으로 화를 키우는 대신, 잠시 멈춰 사실을 바라보며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해석인지 냉철하게 바라보며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